

최고의 복지는 좋은 동료

문화향기

이미경
송원대학 상담심리학과
겸임교수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다. 잠깐 스친 인연도 그러할진대 하루 종일 한 공간에서 부딪히고 생활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더욱더 그러하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직무스트레스를 위한 심리치료 강의를 하면서 절실히 공감한다.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 두는 이유가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고 직장 내 인간관계가 원인인 경우가 가장 높다고 한다. 힘들게 들어간 직장을 그만 뒤야할 정도의 스트레스면 건강을 해치고 삶을 망가트릴 지경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입 간호사가 들어오면 태움이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본인의 기준으로 맘에 들지 않는다고 집단따돌림에 업무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일부에서 일어난다고 한다. 상사로서 오히려 배려와 지지가 필요한데도 개구리 울창이 적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관계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는 오히려 신입사원의 배려 없는 태도가 모두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소위 말하는 낀 세대들은 뒷사람 눈치에 아랫사람 눈치까지 보느라 하루하루 지옥을 경험한다고도 한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

이 나를 지키고 타인을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해본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아닐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100%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충분히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시대적 흐름으로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것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해지면서 삭막하다 못해 소름이 돋을 상황이 가끔 언론에 노출 될 때마다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본다. 과연 나는 잘 하고 있는 것일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힘든 사람은 줄어들 것이다. 내리사랑이라는 옛말이 있지만 동료를 경쟁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업무조차 가르쳐 주는 것을 힘들어 하는 사람들은 분명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직을 하면서 그 자리에 올 사람을 위해 하나하나 세심하게 인수인계표를 작성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일정을 핑계로 전화연결조차 안 되는 사람들을 종종 보았다. 본인 자신은 그런 경우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세상을 살다보면 모두 자업자득으로 내게 돌아온다는 이치를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역지사지' 우리가 늘 가슴에 담고 살아가면 타인에게 상처를 덜 주고 받을 수 있으리라.

직무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호습법과 근육이완법을 훈련하고 인지적 관리방법으로 명상과 인지행동기법을 통해 비합리적인 사고를 수정하는 연습을 한다. 예전에 비해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부담

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관계형성이 덜 되어서 이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폐쇄적인 사고와 행동습관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느껴진다.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습관이 나만의 공간에 머무르고 혼자 해결하는 문화가 형성되면서 그것에 익숙해지고 편안함을 느낀 세대들의 행태가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가 끝나면 스트레스 해소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해 주고 가는 교육생들 덕분에 힘난다. 내가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며칠 전 엄마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손에 들고 있던 젤리를 엄마에게 주었다. 수줍게 미소 지으면서 할머니 드시라고 내미는 손길이 얼마나 예쁘던지 "이렇게 맛있고 귀한 것을 내가 먹지 않고 나눠주려고 하는거야?"하고 얘기하자 엄마 뒤로 숨으면서 고개만 끄덕인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헤어지면서 저렇게 순수하고 예쁜 아이들이 언제까지나 그 모습을 잃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나눌 아름다운 마음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겠다. 최고의 복지라고 하는 좋은 동료는 내가 먼저 되어야 하겠다. 내게 소중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좋아하는 것들을 함께 하고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동료. 지치고 힘들 때 어깨를 내어주는 동료. 기쁨을 백배 천배 함께 나누는 동료. 자식 자랑을 맘껏 할 수 있는 동료. 동료 없이는 살 수 없는 사회적인 동물임을 항상 생각하자.

社說

지방분권·균형발전 특별법 입법 서둘러야

정부 권한 이양과 동시 진행

정부는 최근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주요 권한을 6개 분야(국토, 산업, 고용, 교육, 복지, 제도)로 나눠, 이 가운데 57개 과제를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면서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겠다"면서 이같은 정부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지방 정부로 이양되는 중앙정부 권한으로는 우선 국토 분야에서, 비수도권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을 30만㎡ 이하에서 100만㎡ 이내로 세 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 분야에서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결정할 때 지자체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것과 무인도에서는 규모와 관계 없이 시도지사에게 개발사업계획 승인 권한을 부여하기로 한 것 등은 외국인 고용과 섬이 많은 전남 입장에서 바람직한 결정으로 보인다. 중앙정부

권한 이양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지방정부가 지역 사정과 특성에 맞는 자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일이 훨씬 쉬워져 지방소멸 위기를 지역 스스로 극복하는 데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 정부 재정권이 논의되지 않았고,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방안을 4분기로 논의를 미룬 것은 유감이다. 57개 이양 권한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려면 재정권과 자치조직권이 확대되거나 보장되는 것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전남일보를 비롯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한국지방신문협회가 공동으로 지방 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낸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지속적 소통을 통해 과감한 권한 이양에 힘쓰고 국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신속히 심의·처리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법령 개정 없이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국회는 필요한 관련법을 신속하게 제정을 추진하는 등의 공동 노력 없이는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은 요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알고리즘 조작 부끄러운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과징금 257억원 부과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승객 호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애플리케이션 호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독·과점적 위치를 갖고 있다. 이런 기업이 자사 플랫폼을 사용하는 가맹 택시에게 유리한 알고리즘을 제공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카카오T블루 택시에 배차 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 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 같은 카카오의 '콜 몰아주기'에 따라 가맹기사는 비 가맹 기사보다 월 평균 최고 321건의 호출을 더 수행했다고 한다. 가맹 기사의 월 평균 수입도 비 가맹 기사보다 최대 2.21배 더 높았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업 철학은 동행이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는 것이다. 이동자와의 동행, 이웃과의 동행, 다음 세대와의 동행도 약속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조사대로 알고리즘을 조작해 승객을 골라 태우고, 자사의 가맹기사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줬다면 자신과 파트너를 위한 동행에 충실했을 뿐, 승객과의 동행은 말 치사에 불과했음을 보여준다. 내부적으로 공정위에 적발될 것을 우려했다는 것도 대기업의 씩씩한 단상이다.

AI시대, 첨단 플랫폼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편익을 높여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IT와 전통 기술을 융합시켜 만드는 새로운 세상도 거부할 수 없는 대세가 됐다. 하지만 '데이터가 곧 돈'인 상황에서 자신들이 확보한 방대한 데이터를 공공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를 계기로 이제는 정부가 나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화와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 플랫폼을 악용한 사익 쟁기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도 필요하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13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아디야만에서 한 주민이 거리에 쌓인, 구호품으로 보이는 옷더미를 살피고 있다. 강진 발생 8일째에 접어들면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사망자 숫자는 3만6000명을 넘어섰다. AP/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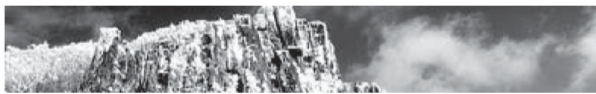
서석대

'영상미학으로 녹여낸 깨달음의 절정이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튀르키예를 직접 가보고 싶었던 것은 지난 2015년 개봉된 튀르키예 영화 '윈터 슬립' 때문이었다. 튀르키예 아나톨리아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주인공 아이딘. 젊은 아내와 이혼한 여동생이 별이는 갈등과 함께 펼쳐지는 화려한 영상의 향연은 압권이었다.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긴 시간, 자연의 변화가 만든 기암괴석도 튀르키예를 향한 동경을 자극했다. "튀르키예의 자연은 지구의 자연이 아니다." 이곳에서 '스타워즈'를 촬영했던 조지 루카스 감독의 이야기다.

앗살라무 알라이쿰!

튀르키예는 신(神)의 나라다. 인류의 역사가 담긴 거대한 박물관으로도 유명하다. 초기 기독교의 복음이 이곳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이뤄졌고, 동로마(비잔틴)나 고대 그리스, 메소포타미아의 다양한 문명들도 이곳에서 태동됐다. 대홍수 이후 노아의 방주가 마지막으로 안착한 곳도 튀르키예에 있다고 한다. BC 250년 세계 최초로 양피지를 만들고,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활동하며 세계 최초로 세운 병원도 튀르키예 아스클레피온 신전이였다. 그야말로 인류사의 보고다.

우리와의 인연도 깊다. 6·25 전쟁 과정에서 2만 명 이상의 병력을 파병한 튀르키예는 수원에 '앙카라 학교'를 건



설해 많은 고아들을 돌봤다. 고구려와 돌궐, 몽골과 돌궐 등 역사적 관계도 특별하다. 돌궐은 튀르키예의 옛 국호인 터키의 한자어 표기다. 지난 2018년 한국과 튀르키예가 공동제작한 다큐멘터리 '아일라 전쟁의 딸'도 생면부지였던 터키인 아버지와 입양된 전쟁고아의 60년 실화를 담아 감동을 안겼다. "국적은 달랐지만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었다." 다큐의 주인공 김은자씨의 회고다.

지난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지에서 일어난 강한 지진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가 상상할 수 없는 상흔에 신음하고 있다. 사고 발생 1주일 여 만에 양국의 공식 사망자만 3만 7000명이 넘어섰다고 한다. 생존자들도 영하의 추위와 전염병, 추가 여진에 노출돼 있다. 수천 년 인류와 함께 해 온 문화재의 훼손도 가슴 아프다. 튀르키예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케말 아타튀르크의 지향점은 평화였다. 현 튀르키예 공화국이 추구하는 가치도 평화다. 전세계 무슬림의 공통 인사말 '앗살라무 알라이쿰'은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로 번역된다. 누구보다 관대하고 폭력을 반대해 온 그곳.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평화를 기원한다. 앗살라무 알라이쿰!...

이용환 논설위원

全南日報	시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기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www.jnilbo.com m.jnilbo.com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461	전남취재부	(062)510-0336		
	사회부	(062)510-0340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경제부	(062)510-0380	사진부	(062)510-0391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